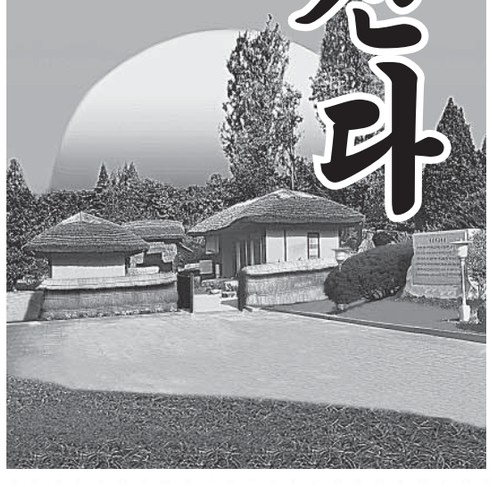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6호 【루계 제2115호】

주체100(2011).4
15
금요일
음력 3.13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

1. 한평생 오로지 인민을 위해
모든것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안겨주시려
수령님은 태양으로 되셨습니다

2. 어제도 오늘도 보았습니다
누리를 비치는 밝은 태양을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안겨주시려
수령님은 태양으로 되셨습니다

3. 우리에게 래일도 해빛을 주는
저 하늘의 태양은 우리 수령님
영원히 밝은 미래를 안겨주시려
수령님은 태양으로 되셨습니다
아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

# 수령님 념원이 현실로 펼쳐지는 조국

뜻깊은 태양절이 왔다.

류달리 청청하게 열린 이 하늘아래 갖가지 꽃들이 망울 터치고 청초한 잎새 펼치여 강산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4월의 봄명절, 민족최대의 명절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그이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우리 겨레는 조국과 민족앞에 쌓으신 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더듬어본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한평생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민족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만드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이였다고 추억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강성대국건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이고 념원이였으며 원대한 리상이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어린 시절 팔도구소학교시절에 지으신 작문 《애국》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면 많은 일을 하게 된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한 일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예로부터 전하는 말이 나라없는 백성은 금수보다도 못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우리들의 영광이며 의무로 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 서슴없이 바칠 이런 숭고한 뜻과 비상한 의지를 품으셨기에 그이께서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압록강을 넘으시며 다지신 맹세도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이 땅에 인민이 잘사는 나라를 기어이 일떠세우는것이였다.

주석께서는 근 70성상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력사의 초행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으니 그 길은 누구나 다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였다.

그 길에서 주석께서 하늘처럼 내세우고 받들어온 귀중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근로하는 인민이였다.

돌이켜보면 리론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민을 떠나 탁상공론과 갑론을박속에 독립을 모색한다고 하고 저저마다 령도권을 다투고있을 때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고 인민의 힘을 믿고 민족자주위업실현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그 길은 진정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자주적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이였고 조국번영의 지름길이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모진 시련도, 처절한 싸움도 이겨내야만 하시였던 수령님이시였다.

일찌기 애국의 길에서 《지원》의 높은 뜻 새겨주시던 아버님을 잃으시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혈전의 마당에서는 어머님과 동생, 삼촌을 잃으시고 사랑하는 전우들과도 생리별을 해야 하였던 모진 괴로움속에서도, 설한풍 휩쓰는 한지에서 적의 포위속에 든채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을 때에도 수령님께서 잊지 못하신것은 운명의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며 몸부림치는 수난받는 겨레였다.

조국과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과 뗄래야 뗄수 없는 한몸이였고 생의 전부였다.

하기에 피어린 항일혈전의 불바다속에서 대원들과 함께 《사향가》를 부르시며 해방된 조국을 그려보시고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래일의 꿈을 키워주시던 수령님이시다.

인민이 주인된 새 정권의 원형도, 세금이 없고 누구나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받는 고마운 인민적시책의 원형도 그이께서 피어린 항일전구에서 마련하신것이였다.

총포성이 울부짖는 백두전장에서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체의 힘이 강해야 나라도 찾을수 있고 인민의 행복도 담보할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굳히신 수령님이시였기에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하시여서도 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 앞으로 일떠설 새 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한 평천길과 강선길을 걸으시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 감회깊이 말씀하신것처럼 총대로 빼앗긴 조국을 찾는것도 간고하였지만 해방후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는 일은 그에 못지 않게 어렵고도 복잡한 위업이였다.

건국의 나날 일부 사람들이 저마끔 남을 쳐다보며 주의주장을 내세울 때 수령님께서는 새 민주조선건설의 길을 인민의 지향에 맞게 자주적으로,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였다. 천겹만겹의 시련이 막아선 전인미답의 그 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을 격파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도 이룩되였다.

전후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던 페허우에서 복구건설의 기적을 창조하시고 다른 나라에서 100년이상이나 걸렸다는 공업화의 력사적위업도 단 14년동안에 이룩하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수령님이시였다.

오늘도 인민을 위한 사랑의 현지지도길에서 어버이수령님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나는 위대한 스승이며 어머니인 인민의 성실한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한평생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였다.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광활한 미래는 위대한 노력을 요구하고있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스승인 인민들속에 들어가 부지런히 배우면서 쉬지 않고 일한다면 우리는 남먼저 광활한 미래를 앞당겨올수 있을것이다!

공장을 하나 일떠세워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그들이 좋아하면 나도 합격이라고 더없이 만족해하시면서 80고령에도 남모르게 지팽이를 드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수령님이시였다.

제철소에 가시면 용해공이 되시여 철생산방법을 토의하시고 농촌에 가시면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짓는 방법을 의논하시였으며 어촌에 가시면 어로공들을 만나시여 먼바다에도 나가고 얕은바다에도 나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 인민들에게 주자며 환히 웃으시던 어버이수령님.

오늘날 이 땅에 흐르는 주체비날론폭포에도 인민들에게 더 많은 옷감을 안겨주시려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이 깃들어있다.

평화시기도 아닌 준엄한 전쟁시기에 몸소 비날론과학연구집단을 내오도록 하시고 과학자들에게 기발한 착상, 힘과 고무를 주시였으며 비날론공장을 세울 때에는 몸소 그 터전까지 일일이 정해주시며 단 몇년어간에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신 주석이시였다.

하기에 비날론을 발명한 과학자는 사람들에게 비날론옷감이 차례질 때 그 어떤 과학자나 기술자를 생각할것이 아니라 인민의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의 은덕을 생각하라고, 후대들에게 그 사랑을 영원히 전하라고 자신의 진정을 토로하였었다.

이 땅을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려주신 그이의 사랑과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온 나라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고 인민행렬차를 쉬임없이 타고가시는 그이의 건강을 생각하며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라는 노래를 절절히 부르고 또 불렀다.

커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였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2만 600여개의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고 2 530여일의 일요일과 명절날들을 쉬지 않으시고 인민을 위해 바치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1994년 7월의 나날에도 경제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며 경제강국건설의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조국통일문건에 귀중한 친필을 남기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사람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한평생 오로지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다 바치신 주석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념원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조국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경제강국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하는 조국의 모습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세상을 들었다놓은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시험의 성공, 주체철, 비날론, 주체비료의 폭포에 이어 무릉도원의 전경을 펼친 원흥땅의 대규모과수평야, 최첨단을 돌파한 CNC화의 거세찬 바람, 공화국의 막강한 힘을 보여준 대계도간석지의 완공, 도처에 일떠선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현대화된 공장, 기업소들,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선 선경마을, 인민들의 윤택하고 문명한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봉사기지들과 양어장, 축산기지들을 비롯한 하나하나의 모든 창조물들과 재부들은 주석께서 지니고계신 생전의 념원과 리상의 실체이고 현실이다.

격동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는 공화국은 다음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경수

---

수필

## 꽃 피 는 4 월

만산에 신록이 짙어가고 꽃들이 망울을 터치는 4월의 봄, 평양의 거리들에는 꽃다발을 정히 들고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다.

평양의 제일경치인 만경봉과 모란봉에도 연분홍빛 진달래꽃, 노란 개나리꽃을 비롯한 갖가지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여나 위인의 탄생일을 반기고있다.

며칠전 내가 경애하는 주석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에 올랐을 때였다. 벌써 그곳은 아름다운 꽃들로 대화원을 펼치고 있었다.

수령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꽃과 뗄수 없는 인연을 맺으신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하는 나의 뇌리에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날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제일 좋은 날이라고,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달이라고 하시며 4월이 오면 꽃이 피기 시작하여 4월 15일에는 만발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런 꽃계절에 만민의 축복을 받으며 탄생하시였다고 하여 세상사람들은 4월 15일을 하늘이 낸 날이라고 한다고, 세계에는 국가수반들이 많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뜻깊은 계절에 생일을 가지고있는 국가수반은 없다고 하신 장군님.

하늘이 낸 꽃피는 날, 봄의 정서를 한껏 풍기며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4월의 봄날에 주석께서 탄생하시였다. 민족의 태양, 만민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였다.

우리 겨레와 세인이 경탄하고 숭배한것처럼 주석은 하늘이 낸 분이시였다.

어느해인가 주석께서 비가 오지 않아 나라의 농사일을 걱정하시자 그이의 탄생일날 봄비가 내려 농민들이 하늘도 알아본다고 감탄했던 이야기며 꺼져가던 고목에 새순이 돋고 꽃이 펴 신비로움을 자아내게 했던 이야기, 수령님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만경대에 백학이 날아든 사실들은 천지조화가 낳은 전설아닌 위인일화였다.

4월은 대지에만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속에도 위인칭송의 꽃을 활짝 피우는 꽃계절이다.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피여난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진귀한 꽃들속에 떠받들려 태양의 존함을 누리에 빛내이는 제13차 **김일성**화축전이 경치좋은 대동강기슭에서 막을 열고 대양과 대륙, 위도와 경도를 넘어 세계 여러곳에서 **김일성**화전시회가 펼쳐지고있으니 4월은 절세의 위인을 칭송하는 행성의 꽃계절이다.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도 활짝 피여나 반기는 **김일성**주석은 참으로 하늘이 낸 위인이시다.

백봉일

---

## 인민을 위해 바치신 생신날

### 해 방 된 조 국 에 서

주체36(1947)년 4월 15일 아침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항일의 불길속을 헤쳐온 항일투사들이 그이의 저택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해방된 이듬해에도 수령님께서 생신날을 쇠지 못하신것을 가슴아프게 여기고 이해에만은 어떻게 해서나 꼭 생신날을 쇠드리고싶어 이렇게 왔던것이다.

아침이 다 되여서야 집무실에서 돌아오신 수령님께서는 차려놓은 검소한 음식상과 전우들을 보시고 무슨 일인가고 물으시였다.

오늘이 장군님의 생신날이라고 전우들이 말씀드리자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동무들의 성의만은 고맙다고, 그러나 생일이라고 하여 내 어찌 생일상을 받겠는가, 나라는 해방되였어도 인민들에게 쌀도 넉넉히 못 주고 아이들에게 사탕 한알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데 생일상을 받은들 내 마음이 어찌 기쁠수 있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오늘만이라도 잠시 휴식하시기를 또다시 간청하는 전우들의 뜨거운 마음에 격정을 금치 못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오늘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전우들을 추억하며 회포나 나누라고 생일상을 투사들에게 밀어놓으시고 집무실로 나가시였다.

### 평 범 하 게 흘 러 간 생 신 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언제한번 생신날에 휴식하신적이 없으시였다. 몇몇 일군들과 가족들이 댁에 모여 소박한 오찬이나 함께 나누시는것이 고작이였다.

어느해 생신날에 있은 일이다.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일군들은 아침일찍 수령님께로 달려가 축원의 인사를 올리였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일군들을 의아하게 바라보시며 오늘이 무슨 날이던가 하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오늘이 어버이수령님의 생신날이라는것을 말씀드리며 다문 하루라도 댁에서 피곤을 좀 푸셨으면 좋겠다고 아뢰였다.

그제야 비로소 영문을 아신듯 수령님께서는 아 그렇던가, 고맙소, 그러나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라고 쉬겠소라고 말씀하시며 크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여느날과 다름없이 나라일을 돌보시며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였다.

### 생 신 날 에 맞 으 신 비

주체66(1977)년 4월 15일, 봄내 가물던 땅에 그해의 첫비가 내렸다.

가장 경사스러운 뜻깊은 날에 내린 약비를 두고 인민들이 가슴뜨거이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고있을 때,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이날의 아침을 맞고계시였다.

이른 새벽 창밖에서 비가 내리는것을 보신 수령님께서는 참, 기쁜 소식이구만 하시며 밖으로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날 즐거이 비를 맞으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이 생일생일하는데 비가 오니 생일날보다 더 기쁘오, 아, 비가 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만라고 하시며 비내리는 마당을 그냥 거니시였다.

자신께서 입으신 옷이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농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던 단비가 내린다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도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본사기자

# 통일위업에 바치신 거룩한 한생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로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해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의 분렬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애국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40여년에 걸치는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은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매국노들에 의하여 엄중한 분렬의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미국과 그에 추종한 남조선의 매국세력은 전체 조선인민의 민주주의적통일독립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망국적인 《단선단정》을 조작하려고 책동하였다. 민족분렬이 고정화될수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에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에 철추를 내리도록 하시였다.

오래동안 격페상태에 있던 북남관계에 대화와 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펼치시고 력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제시로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가신분도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의 반통일매국세력이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지향에 도전하여 《두개 조선》음모를 공공연히 드러내였을 때 즉시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분렬책동에 타격을 가하시고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굳은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참으로 조국의 통일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며 어느 하루도 편히 쉬여보지 못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민족의 통일위업에 쌓으신 업적중의 업적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여 겨레에게 안겨주신것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민족통일의 대강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에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워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고 더욱 강화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민족단합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각계각층의 겨레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아무때나 만나 허물없이 통일론의도 하시였고 민족성원모두를 통일대오에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숭고한 동포애를 지니시고 남녘겨레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겨레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준다.

해방후 물이 없어 애타하는 남조선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공화국북반부의 저수지물을 보내주도록 하신 이야기,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시민들의 땔감문제를 걱정하시여 한강으로 나무를 떠내려보내도록 하신 이야기, 큰물로 재난을 겪는 남녘동포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남녘의 수재민들에게 구제물자를 보내주도록 하신 이야기 등 그이의 동포애적사랑을 짧은 지면에 다 담을수 없다.

하기에 온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우러르며 그이의 유훈을 받들어 기어이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드시고 정력적인 통일령도로 력사적인 6.15시대를 펼치시고 이끌어오시였다.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대결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지만 조국통일3대헌장, 북남공동선언들이 빛을 뿌리고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이 있는한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의 통일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통일대진군을 더욱 다그쳐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인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 민족의 대단결을 더욱 강화하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3돐이 되여온다.

이 력사의 날을 맞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신심과 의지는 더욱더 굳세여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87(1998)년 4월 18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강령적문헌이며 현시기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평양에서 진행된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의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민족대단결의 기초와 리념, 과업과 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로작이 발표된 후 지난 13년간은 민족대단결5대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나날들이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발표되여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며 발전하여왔고 북남공동선언들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애국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온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사이의 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고 북남관계를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는 극도의 대결관계로 전락시켰으며 동족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북남관계가 처한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동족대결책동,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이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대화》니, 《진정성》이니 하는것은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리념밑에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외세와의 공조에 혈안이 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사대매국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민족의 생사존망, 통일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것이 없으며 그로 하여 피해를 입을것은 우리 민족이고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외세이다. 온 민족은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총궐기해나서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침략적인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단호히 저지분쇄하여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의 길, 망국의 길이다. 온 민족은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친미호전분자들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통일에 역행하는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과 동포들사이의 련대련합을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온 겨레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위한 련대투쟁, 공동투쟁을 힘차게 벌려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림소영

# 4월남북련석회의의 정신을 이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주체37(1948)년 4월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열렸던 때로부터 63년의 세월이 흘렀다.

1 000여만명의 각계층 성원들이 소속된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 695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된 남북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력사적인 대회합이였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력사적인 승리였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정치세력들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가 시작된 오늘까지도 나라의 통일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큰걸음을 내짚었던 통일로 향한 우리 민족의 힘찬 진군은 지금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을 뒤집어엎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지난 1월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련합회의를 소집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문제들을 담은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나며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한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할데 대한 이 련합성명이야말로 4월남북련석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와 격문에 담겨져있던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사상이 그대로 구현된 력사적선언이다.

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겨레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홍성철

# 련방제통일지향은 북남관계개선의 길

지금 온 겨레는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정책으로 초래된 현 북남관계의 위기가 하루빨리 가시여지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이러한 민족적의사와 념원에 맞게 북남사이에 조성된 대결국면을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자면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조선보수당국이 동족에 대한 적대시대결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고 공화국의 대화제의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사업을 전면차단하였으며 지어는 민간급단체들의 접촉과 래왕마저도 가로막고있다. 그런가하면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열을 올리는 한편 동족에 대한 《흡수통일》각본까지 미리 짜놓고 각종 형태의 북침전쟁연습들을 미친듯이 감행하면서 북남관계를 극도의 대결에로 몰아가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무모하게 벌리고있는 동족대결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흡수통일》을 노린 체제대결책동이다. 그들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 정치체제를 적대시하며 《정부와 인민을 갈라보아야 한다.》느니, 《변화유도》니, 《급변사태가능성》이니 지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니 뭐니 하고 공개적으로 떠들고있는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의 현 당국이 집권첫날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한것자체가 북과 남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힘을 합쳐 통일에로 나아가는것을 반대하고 《체제통일》을 추구한 반증이다.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민족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발전해나가려면 무엇보다먼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것으로부터 출발해야겠는데 그것을 전면부정하고있으니 북남관계가 대결관계로 다시 돌아설수밖에 없는것이다.

자기를 해치려고 기회만을 노리는 상대를 좋은 감정으로 대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 결국 북남관계의 파국과 충돌, 전쟁위험은 남조선당국의 체제대결책동이 몰아온것이다.

공화국에는 인민이 선택하고 지지하는 자기 식의 우월한 사상과 제도가 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으며 체제대결의 종착점은 통일이 아니라 처참한 전쟁이다.

오늘과 같이 비극적이고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를 바로잡자면 북과 남이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시켜나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련방제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이다. 그것은 북에도 리롭고 남에도 리로우며 민족모두에게 평화와 통일, 번영을 가져다줄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북과 남은 이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북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와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점을 살려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과 남이 대결의 오랜 력사를 거쳐오면서 마침내 합의한 이 통일지향은 아주 공명정대하고 현명한 21세기 통일라침판이다.

사상과 제도우에 민족이 있고 반만년 오랜 력사를 통해 형성된 민족성과 민족애에 기초한다면 민족의 단결을 능히 이룩하고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올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동족을 적대시하는 대결관념부터 버려야 한다. 실현될수도 없는 《흡수통일》의 허황한 망상도 버리고 《보안법》, 《주적론》과 같은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들을 집어던져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통일이다.

온 겨레는 민족대단결의 기치, 련방제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 민족의 숙원인 통일조국을 건설하자

## 범민련 남측본부가 강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발표 18돐에 즈음하여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가 6일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김일성**주석께서는 1993년 4월 6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로작에는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할데 대한 사상이 밝혀져있다고 글은 언급하였다.

글은 또한 로작에는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하며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고 밝혔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참으로 공명정대하고 위대한 통일대강이라고 하면서 특히 2000년 6월 남북수뇌상봉은 이를 실천으로 꽃피우는 력사적인 분수령이였다고 글은 주장하였다.

온 민족이 6.15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고 글은 주장하였다.

글은 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도 겨레의 거세찬 발걸음을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전체 애국민중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귀에 쟁쟁한 북녘어린이들의 통일호소

얼마전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귀에 쟁쟁한 북녘어린이들의 통일호소》라는 글이 실렸다.

글은 2001년 북에서 진행된 통일행사를 취재할 당시 사람들의 가슴을 가장 울렸던 이들이 바로 북녘의 어린이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마음껏 예능을 배우는 모습도 충격적이였고 남, 북, 해외참가자들앞에서 보여준 공연도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다. 세계 어디에도 없고, 보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뛰여난 예능실력에 그저 입을 닫을수가 없었다.

그 북녘어린이들이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린 남, 북, 해외 청년학생대회를 축하하여 또 간단한 공연을 펼쳤다. 그때 리수향어린이도 패랭이춤으로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공연후에 인터뷰를 해보니 8살이였던것으로 기억난다. 너무 부끄러워해서 특별한 말은 나누지 못했다.

하지만 공연 막판에 모든 배우어린이들이 무대로 다 나와 《언니, 오빠, 우리에게 더는 분단조국을 물려주지 마세요. 남녘의 어린이들과 얼싸안고 놀수 있게 제발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세요.》라며 절규하던 호소만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너무나 절절해서 돌아오던 날 평양 순안공항에 배웅나온 북녘어린이들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수난많던 우리 민족이 왜 오늘에 와서까지 분단으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고운 아이들의 가슴을 옥죄고있는 분단철조망마저 여지껏 걷어내지 못한단 말인가.

서러워서 울었고 분해서 울었다.

그때의 그 어린이들이 이제는 20대 청춘들로 자랐을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조국은 분단의 고통으로 신음하고있으며 오히려 전쟁의 먹구름은 짙어만 가고있다.

우연히 인터네트를 검색하다가 유튜브에 올라온 리수향어린이의 그때 그 능청스러우면서도 개구장스럽고 또 발랄한 패랭이춤을 보니 더욱 통일이 그립고 절실해진다.

오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본사기자

# 태양절과 더불어 영원할 주체년호입니다

오 익 제

주체년호로 빛나는 내 조국에 경사스러운 태양절이 왔습니다.

올해의 태양절은 주체100년에 맞이하는 명절이여서 만경대에서 시작된 우리 민족의 100년사가 새삼스럽게 되새겨집니다. 그 성스러운 력사를 돌이켜볼수록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빛나는 절세위인의 한생이 자욱자욱 어려오고 그 년대기를 더듬어볼수록 주체의 태양을 모시여 누려온 행운의 세월이 심금을 울려줍니다.

세계만방에 위인칭송의 찬가가 높이 울려퍼지는 4월의 봄명절을 맞아 한없는 민족적영광과 긍지를 안고 주체년호에 어린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 태양민족사의 영원할 기념비입니다

이 세상에 년호라는 말이 생겨난 때로부터 수수천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인류사에는 각이한 년호들이 기록되였습니다.

나라를 세운 해를 원년으로 하는 건국년호도 있고 임금의 권세와 공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통치년호도 있으며 교리창시자의 출생년을 기원으로 하여 전해지는 종교년호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력사에도 여러가지 년호를 사용한 기록들이 적지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복락을 누린다는 의미의 《영락》년호, 어질고 편안하다는 뜻을 담은 《연안》년호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하늘로부터 나라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천수》년호도 있고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이 바로 잡히고 국력이 성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광무》년호, 《륭희》년호도 있었습니다.

우리 천도교에서도 1대교조 수운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한 날을 기원으로 하는 《포덕력》을 쓰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년호들에는 시대의 특징이나 당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의 상징인 주체년호는 지나온 력사에 출몰했던 그 허다한 년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년호입니다.

주체년호는 기존의 기년법이나 년호의 사용관례와 기간, 성격에서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년호입니다.

주체년호는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억만년 흐를 주체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제정된 위인칭송의 대기념비입니다.

한 력사가는 20세기를 총화하면서 그리스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어 문명세계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에게 주인된 세계, 리상향건설의 열쇠를 안겨주시였다고 격조높이 토로한바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주체는 곧 우리 주석님이십니다.

주체의 홰불로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히시고 현명하게 령도해오신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이 주체년호의 년, 월, 일마다에 찬연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그 년륜에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가득찬 20세기의 방향타를 틀어쥐시고 겨레와 인류를 향도하여오신 주석님의 위인상이 빛발치고있습니다.

주체년호의 갈피에는 주석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명시하신 력사의 날도 빛을 뿌리고있고 백두광야를 주름잡아 달리시며 일제의 백만관동군을 락엽처럼 흩날려버리시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신 조국해방의 새 아침도 찬연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당창건기념일과 공화국창건기념일, 건군절을 비롯하여 주체년호와 더불어 기쁨과 환희속에 경축하는 날들은 또 그 얼마나 많습니까.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신 전승의 7월이며 독창적인 부강조국건설로선과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변화시키시며 조국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신 위대한 사변들이 갈피마다에 금문자로 수놓아져있습니다.

주체년호는 한없이 숭고한 덕망으로 이민위천의 리념을 꽃피워오신 어버이주석님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전하는 송덕비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지, 인, 용을 다같이 겸비한 인물을 두고 사람들은 위인이라고 일러왔습니다. 력사에는 우리 주석님처럼 고매한 덕망을 체현하시고 인덕으로 만백성을 이끄시여 이 땅우에 인간사랑의 대화원을 가꾸신 희세의 위인은 없었습니다.

사상도 인민을 위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당도 인민을 위한 당을 건설하시였으며 정치도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광폭정치를 베푸신 주석님의 넓은 품이 있어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정사를 론하는 희한한 현실이 주체년호와 더불어 전설처럼 전해지고있습니다. 제도도 인민을 위한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신 주석님의 하해같은 은덕속에 인민이 누리는 무상치료, 무료교육, 무세금의 혜택도 이 주체의 년대기에 새겨졌습니다.

흐린물, 맑은물 다 받아안고 푸른빛 되게 해주는 드넓은 바다마냥 만인을 품어안는 주석님의 넓고넓은 사랑의 대하가 있어 지난날 사상과 리념을 달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영생의 언덕에서 빛나는 삶을 누리고있습니다.

저는 조국에 영주하여 살면서 예가 바로 천도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한울대접을 받으며 풍요와 복락을 구가하는 지상천국》임을 매일같이 절감하고있습니다. 인간이 천시당하고 인민이 통치배들의 롱락물로 되고있는 비정한 남조선사회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저로서는 내 조국의 현실이 전설속의 무릉도원처럼 황홀하게만 느껴집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 한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신 이민위천의 높으신 뜻이 이런 인간만세의 새세상을 펼쳐놓은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석님은 이 세상 위인들의 모든 공적을 합친다 해도 견줄수 없는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 력사에 새겨진 사랑의 전설들을 다 엮어놓아도 비기지 못할 인간사랑, 인민사랑의 대서사시를 수놓으신 불세출의 영웅이시고 희세의 전설적위인이시며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주체시대의 이 모든 력사적변혁들은 인류가 아는 그 어떤 년호로써도 도저히 표기할수 없습니다. 이전의 모든 년대표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년호로써만 표기할수 있는것이 주체의 빛발아래 이루어진 대사변들이며 대변혁들입니다.

하기에 어버이주석님을 만민의 태양으로 절대적으로 칭송해온 우리 민족과 진보적인류는 오래전부터 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세세년년 기념하며 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자주시대의 흐름을 주석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기록할것을 절절하게 바라마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화국에 영주하여 들은바에 의하면 조국의 많은 학자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시원으로 한 새로운 력법을 만들어 론문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조선로동당과 정부에 청원편지를 올리면서 주체력의 제정을 한결같이 념원하였다고 합니다.

민족주의자였던 최동오선생은 생전에 지금 세계가 서력(서기)을 쓰고있는데 만백성은 업적이 하도 위대하여 **김일성**장군님의 탄생일을 원년으로 하는 새 공통력서를 만들어쓸것을 바라고있다고, 이 만백성의 소원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긴바 있습니다.

한때 《반공》일선에 있던 그의 아들 최덕신동덕도 우리 주석님의 인품에 매혹되고 주석님의 손길아래 꽃피는 주체의 화원을 보면서 훌륭한 사상과 출중한 령도력, 고매한 덕망을 겸비하시고 민족과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현세의 한울님》으로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그는 주석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단군민족의 새 력사가 기원되였고 자주의 새시대가 온 누리에 도도히 굽이쳐 흐르게 되였다고 하면서 새 력사시대의 기원년은 주석님의 탄신년으로 되여야 하며 이것은 온 겨레와 만민의 뜨거운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의 새로운 공동기원력서는 가칭 《자주력》 혹은 《주체력》이라 부를수 있을것이며 그것을 21세기부터 썼으면 한다는 소견까지 밝혔던것입니다.

**김일성**민족의 력사를 청사에 가장 정확히 가장 빛나게 아로새길수 있는 년호의 제정, 그것은 온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절절한 념원이였습니다.

## 고결한 충정의 기념비입니다

주체의 태양년호는 오직 태양위인의 뜻을 그대로 체현하신 걸출한 위인만이 창제하실수 있습니다.

겨레와 인류가 념원하는 **김일성**민족의 력사를 새로운 년호로 빛내여주신 분은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기를 견결히 지키고 대를 이어 세차게 휘날려야 하며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뜻대로 일을 잘하여 김일성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세계만방에 더욱 높이 떨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주체년호의 탄생은 어버이주석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결정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할것을 구상하신것은 어버이주석님을 잃은 애도의 나날부터였다고 합니다.

어버이주석님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도 제시하시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려주시며 열화와 같은 충정의 나날을 이어가시던 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뜻이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주체86(1997)년 정초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3년상을 치른 다음부터는 인민들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날보다 탄생하신 날을 더 뜻깊게 기념하도록 할 의지를 피력하시였다는것입니다.

우리 수령님은 존함그대로 태양이시라고, 그러므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태양절로 명명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장군님께서는 1912년 4월 15일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오늘의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제정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주체년호와 태양절제정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장군님의 높은 뜻에 받들려 주체86(1997)년 7월 8일 주체년호와 태양절제정과 관련한 중대결정이 온 세상에 발표되였던것입니다.

저는 그때 남조선에서 이 소식을 전해듣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 서거하신지 3년이 되도록 국가주석직이며 당총비서직 등을 그대로 두시고 일체의 추대사업도 하지 않으시면서 오직 주석님을 더 잘 모시고 받드시기 위한 사업에만 전념하신 장군님께서는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시여 우리의 민족사를 영원무궁할 **김일성**민족사로 빛나게 해주시였으니 그 숭고한 도덕의리에 감복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한 력사학교수는 저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민족의 태양을 모신 그처럼 위대한 시대에 살고 그토록 자긍넘친 력사를 가지고있으면서도 그것을 더 높이, 더 자랑스럽게 명명하지 못하여 모대긴것이 력사학자들이였다, 그런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력사학자들의 이 갈망만이 아닌 민족모두의 숙망을 풀어주시였다, 이제 그분께서 제정해주신 주체년호와 더불어 **김일성**시대는 시공간적으로 영속하게 되였다, 몇천년, 몇만년후의 자손들도 이 시대의 후손으로 기록될것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김일성**조선의 력사를 주석님께서 탄생하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억만년 무궁토록 기록해나가며 우리 겨레의 운명개척과 행복한 생활의 모든 근원을 대대손손 주석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에서 찾을수 있게 된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자랑이고 경사입니까.

주체년호와 태양절의 제정으로 수령영생위업실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장군님의 뜨거운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겨레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석님의 거룩한 태양상과 자애에 넘치신 음성만이 가득차게 되였으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이 심장깊이 자리잡게 되였습니다.

우리 조국에서 창조되는 거창한 력사적전변들도 주체년호로 후손만대에 전해지게 되였습니다.

정녕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드리는 온 민족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영광의 찬가인 주체년호의 탄생은 반만년력사에 다시없을 또 하나의 대경사이고 태양민족사를 가장 빛나게 장식하는 일대사변이였으며 **김일성**시대의 영원불멸성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였습니다.

오늘 주체년호는 어버이주석님에 대한 거룩한 충정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스런 선군혁명령도와 더불어 더욱 찬연히 수놓아지고있습니다.

어버이주석님의 혁명력사이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력사입니다. 장군님께서 헤쳐가시는 선군길은 그대로 주석님께서 걸으시던 자주의 길이며 장군님께서 수놓아가시는 선군혁명령도사는 주석님께서 개척해오신 주체혁명위업의 완벽한 승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조국을 선군으로 지켜주시고 주석님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십니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비롯한 경이적인 성과들과 최첨단을 돌파한 CNC의 대경사들은 장군님께서 주석님의 념원을 꽃피우시는 길에 이룩하신 불멸의 화폭들입니다. 강선과 김철, 남흥과 흥남, 강계와 대흥 등 조국땅 방방곡곡 어디서나 매일 매 시각 터치는 다계단의 그 모든 변들은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꿰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쉼없이 최전선을 이어오신 장군님의 빨찌산식현지시찰속에, 명절날, 휴식일 가림없이 온 나라 방방곡곡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대전을 현지지도하시는 초강도강행군속에 주체년호의 날과 달이 흐르고 해와 년대가 바뀌여지고있습니다.

천도교경전에는 만년에 대일변이, 천년에는 중일변이, 백년에는 소일변이 오는데 그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국에서는 반만년민족사에 기록될 다계단의 변들이 련속 일어나 세상을 놀래우고있습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령도가 있어 어버이주석님의 력사, 주체100년사는 세인의 시선을 모으며 인류사의 최절정에서 눈부신 빛을 발하고있는것입니다.

주체년호의 년대기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온 겨레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열렬한 애국애족의 뜻과 투철한 신념과 의지도 힘있게 맥박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와 같은 불후의 명저들을 발표하시여 주석님의 불멸의 통일업적과 민족대단결의 높은 뜻을 새겨주시며 온 겨레를 주석님의 통일유훈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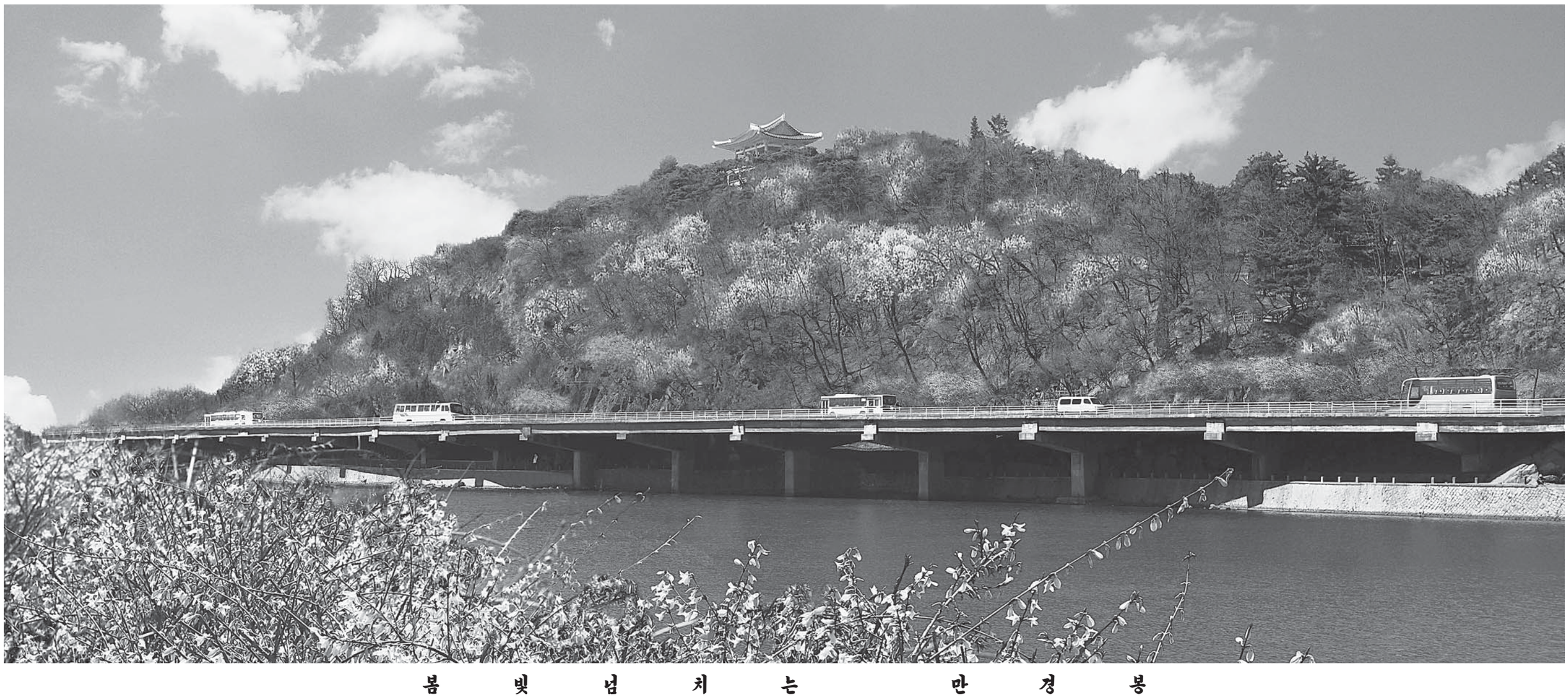
두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이 우리 민족끼리의 궤도를 따라 기운차게 전진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최근에는 한번 맺은 인연을 귀중히 여기시여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주신것을 비롯하여 통일애국의 길에 수놓아가시는 장군님의 령도자욱은 주체년호에 력력히 아로새겨져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온 겨레가 주석님그대로이신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되여 **김정일**장군님은 통일이시라고 하면서 장군님을 모시여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는것은 당연지사라 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을 시원으로 하는 주체년호의 날과 달들은 수령복, 장군복, 대장복이 넘쳐나는 겨레의 행운과 강성부흥할 조국의 미래를 담아싣고 찬연히 수놓아지고있습니다. 천만년 길이 빛날 어버이주석님의 력사속에 백두의 혈통으로 이어지고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년륜으로 새겨지는것이 우리의 주체년호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주체년호와 함께 빛내여가는 우리 군민의 감격과 긍지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내 조국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승전고도 주체년호로 높이 울려퍼지고 조국통일의 축포성도 주체년호와 더불어 3천리강산에 터쳐올릴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봄 빛 넘 치 는 만 경 봉

# 위인칭송의 노래 울려퍼지는 뜻깊은 무대

##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성대히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만민의 지향과 념원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며 년대와 세기를 이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스물일곱번째의 년륜을 아로새기고있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10일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축전개막식이 진행될 류경정주영체육관과 그 주변의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은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여있었다.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연도에서 꽃다발을 흔들면서 개막식장으로 향하는 축전참가자들을 뜨겁게 환영하였다.

취주악단의 경쾌하고도 기백넘친 연주와 흥취나는 상모춤, 부채춤, 장고춤, 탈춤등이 펼쳐졌다.

열렬한 환영분위기에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축전참가자들은 환호하는 군중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권위있는 대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개막식장에 들어섰다.

개막식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강능수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안동춘문화상,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외국예술인들, 해외동포예술인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들, 주조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먼저 이번 축전에 참가한 예술단체들이 소개되였다.

안동춘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맞으며 평양에서 성대하게 열리는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외국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세기를 이어오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참다운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진보적예술인들의 국제적인 대예술회합으로, 나라들사이의 문화적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되여온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에는 명망높은 문화관계인사들과 국제, 국내콩클수상자들을 비롯한 이름있는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고 말하였다.

축전은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문화발전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나누며 인류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문화예술인들의 기대에 맞게 축전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을 선언하였다.

《빛나는 조국》노래선률이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여러 나라와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발을 게양하였다.

축전명예손님인 프랑스인민운동동맹출신 국회 하원의원 쟝 프랑쑤아 망쎌은 축하연설에서 축전의 개막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축전참가자들모두에게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중국길림성교향악단 단장 장호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중국예술단을 대표하여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개막된것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사이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리해와 친선을 더욱 두터이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번 축전이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연설들이 끝난 다음 전광화면에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진행되여온 축전들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공연들을 보아주시고 참가자들을 접견해주시는 영상을 모신 화폭들이 숭엄하게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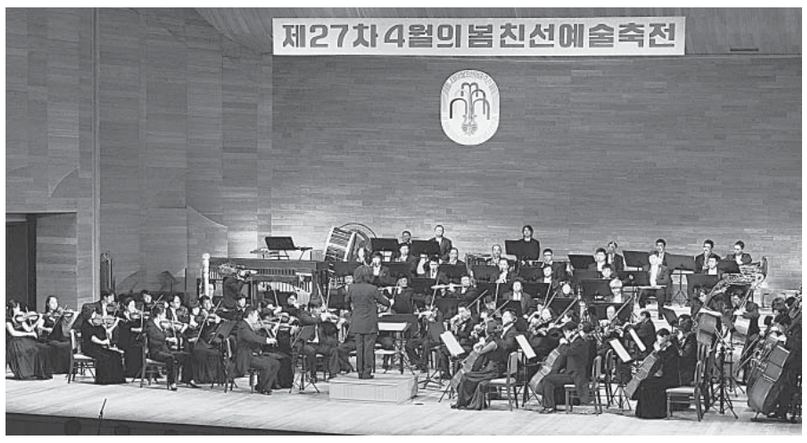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면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축전에 참가한 전체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주체조선의 하늘가에 태양칭송의 노래,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를 높이 울려퍼지게 할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개막식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공연이 있었다.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공연은 지금 시안의 여러 극장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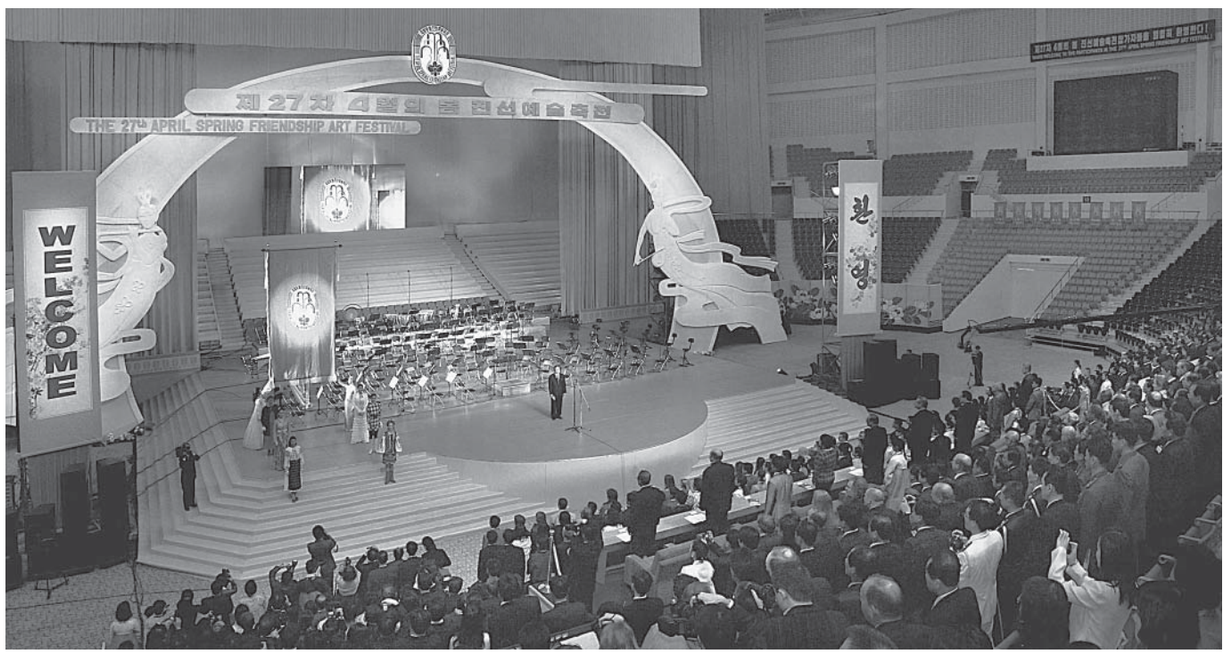
본사기자



중국 길림성교향악단의 관현악 《매혹》

벌가리아 쏘피아가극극장소속 《오르페이》배우단 독창가일행의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군무 《세계를 향하여》
➡ 몽골국립교향악단명배우단의 녀성독창 우리 나라 노래 《못 잊을 나의 길》




# 절세위인에 대한 흠모의 마음담아 펼쳐진 꽃바다

## 제13차 김일성화축전 개막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제13차 **김일성**화축전이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축전장인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는 《제13차 **김일성**화축전》, 《태양절기념》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나붙어있고 공화국기와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는 축전장은 근 2만상에 달하는 태양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루고있다.

축전장에는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와 인민군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피여난 **김일성**화들이 전시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들 그리고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들,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인사들, 불멸의 꽃보급후원회 회원들, 화교들의 지성이 어린 불멸의 꽃들이 축전장에 전시되였다.

축전개막식이 13일에 진행되였다.

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안동춘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지난 10여년간 성황리에 진행되여온 불멸의 꽃축전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제13차 **김일성**화축전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4월의 봄명절과 더불어 꽃바다로 펼치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며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의 끝없는 경모심을 뜨겁게 보여주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리 운또로 드라드쟈뜨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 단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9돐에 즈음하여 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1) 경애하는 장군님 모시여 영원히 흐르는 수령님의 력사
2) 하나의 조선로선견지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통일위업에 쌓으신 특출한 업적

강의시간: 1) 1강의
2) 1강의

송출날자: 1) 주체100(2011)년 4월 18일
2) 주체100(2011)년 4월 18일

홈페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절기념우표 발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세계 진보적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삼가 올린 선물식물들을 반영한 우표(묶음전지 1종)를 발행하였다.

— 30원우표(묶음전지): **김일성**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54(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을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는 경애하는 주석을 끝없이 흠모하면서 보고르식물원에서 새로 육종한 아름다운 꽃에 그이의 존함을 모시였다.

란초과식물의 한 품종으로서 **김일성**화가 피여있는 기간은 2~3달이다. 번식은 포기자르기, 조직배양 등으로 하며 온실에서 화분재배한다.

— 42원우표(묶음전지): 과꽃품종

주체65(1976)년 11월 네데를란드왕국 오우선 후레이트운수대리회사 사장 웨. 엘. 보스가 위대한 주석께 올린 식물이다.

— 70원우표(묶음전지): 꽃창포품종

주체71(1982)년 3월 일본 시즈오까현 가께가와시 가모꽃창포 주임 가모 모도데루가 위대한 주석께 올린 식물이다.

— 98원우표(묶음전지): 장미

주체73(1984)년 10월 뽈스까 내각에서 위대한 주석께 올린 장미과에 속하는 잎이 지는 넓은잎떨기나무이다.

— 112원우표(묶음전지): 감색나리

주체78(1989)년 11월 총련 니시노미야시지부 서분회 고문 강덕룡동포가 위대한 주석께 올린 식물이다. 우표의 크기는 165×97㎜(묶음전지), 52.32×52.32㎜(우표)이다.

태양절기념우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 《잃어버린 10년》과 오늘

남조선에서 《실용정부》가 발족하여 3년이 더 지나갔다. 다음해에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는것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셈이다. 벌써부터 남조선의 정치무대에서는 다음기 권력쟁탈전이 시작되고 현 집권자의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부패하고 무능한 현 집권세력을 규탄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도그럴것이 집권 수년간에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악정으로 남조선을 총체적인 위기에로 몰아넣었기때문이다.

북남관계를 총체적인 파산에로 몰아간것도 그 죄악중의 하나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집권 첫날부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고 하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이전 《정권》들과는 다른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지금 보는것처럼 북남관계가 어느 하나 성한것이 없고 모조리 마사지고 지어는 총포탄이 오가는 지경이 되였다. 북남관계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극적인지 오늘에 와서는 보수세력도 약방의 감초처럼 써먹던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을 더는 입에 올리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잃어버린 10년》!

지금 시점에서 이 말의 의미를 곰곰히 되새겨보면 참으로 많은것을 알수 있다. 그것이 과연 잃어버린 10년이였는가. 10년은 강산이 변한다는 오랜 세월이다. 통일을 위해 한시가 새로운 우리 겨레에게 그 10년을 진짜로 잃게 한것은 누구인가. 북남관계를 2000년이전 지어 수십년 후퇴시킨 죄악의 장본인은 누구이며 그로 인해 북남관계에서 잃은것은 무엇인가.

## 사라진 화해와 신뢰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채택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진 6.15시대가 겨레에게 안겨준 환희로운 사변은 불신과 대결의 오랜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것이였다.

나라가 분렬되여 장장 50여년, 북남관계는 동족과의 관계이면서도 이 세상 어디서도 볼수 없는 최대의 적대관계에 있었다. 분렬의 력사가 지속될수록 민족의 마음을 갈라놓는 불신과 대결의 장벽은 더욱더 높아만갔다.

그러던 불신의 감정, 적대의 차디찬 감정이 6.15를 기점으로 봄날의 눈석이처럼 녹아내리였다. 북남관계는 진실로 동족과의 관계,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되였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은 화해와 신뢰의 새 력사를 썼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민족적공통성, 통일지향이 우선시되고 뜨거운 혈육애가 북과 남의 겨레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감동적으로 차넘쳤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학자, 언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을 비롯한 북과 남의 각계층이 뜨겁게 만나 얼싸안았고 통일행사장, 국제경기장들에서는 《우리는 하나!》, 《조국통일!》, 《우리 민족끼리!》의 거세찬 함성이 민족은 하나, 피줄도 하나임을 확인시키며 겨레를 감동시키였다.

북의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서면 남의 관중들이 응원하고 남의 선수들이 출전하면 북의 응원단이 열띤 응원을 펼치는 등 겨레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여갔다.

그러던 북남관계가 지금은 6.15이전의 첨예한 적대관계로 다시 돌아갔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이르고 대결의 찬기운만이 조선반도를 휩쓸고있다. 남조선에서 《보안법》, 《주적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통일인사들이 《친북리적》으로 몰려 박해탄압받고있다. 동족을 헐뜯고 자극하는 심리모략전도 매일같이 벌어져 사태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고있다.

## 대화도 잃고 협력도 잃어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통일에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고 수단이다. 대화를 해야 서로를 더 잘 알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난문제도 해결할수 있으며 협력을 해야 민족의 힘을 더욱 키우고 나아가서 더 큰 하나가 될수 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7년간 북남사이에는 21차의 상급회담과 13차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그리고 군사당국자회담을 비롯하여 무려 140여차의 회담과 접촉이 진행되였다. 이것은 북남대화력사에서 전례없는 기록이다. 당국회담도 진행되고 민간급의 각이한 대화들도 수시로 진행되였으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하여 다방면적인 협력사업들도 활기있게 진행되여왔다.

특히 2007년의 력사적인 10.4선언발표이후 남조선에 현 보수《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만도 북과 남사이에는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총리회담과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비롯하여 많은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였다. 그리고 분야별 협의리행기구가 구성운영되여 수십여건에 달하는 협력사업들이 합의되고 실천적인 후속조치들이 취해졌다. 중요하게는 북남관계발전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창설, 개성공업지구건설확대, 백두산관광 등 여러 분야의 쌍방합의들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였다.

그러던 북남관계가 지금은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는 최악의 위기에 처하여있다. 남조선에서 현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다운 대화가 한번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7년간이나 꾸준히 진행되여온 북남상급회담은 아예 페쇄되고 10.4선언이후 총리회담과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발전한 북남대화도 하늘로 날아났다. 그처럼 활발히 진행되던 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과 대화도 할수 없게 차단봉이 내리워져있다. 지난 시기에는 북과 남을 오가며 수시로 만나고 대화를 하였지만 오늘에는 남측당국의 대화단절, 협력차단책동으로 말미암아 제 땅에서는 물론이고 3국에 나가서도 만날수 없는 비극이 펼쳐지고있다.

북남사이의 협력의 길도 꽉 막히였다. 겨레의 통일열기를 복돋아주며 10년간 진행되여온 금강산관광도 중단되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던 개성공업지구사업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있다.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던 북과 남사이의 철도와 도로도 다시 막히고 하늘길, 배길도 끊어졌다.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사회문화협력, 인도주의협력에도 빗장이 걸렸다.

남조선보수당국은 10.4선언의 발표로 북남사이의 보다 통이 큰 협력에 대한 기대로 환희에 찼던 겨레의 꿈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 잃어버린 평화분위기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10.4선언에로 이어지던 나날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전쟁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몰랐다. 북남관계진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내외세력에 의해 일시적인 곡절과 충돌은 있었지만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고 누구도 생각지 않았다. 그만큼 6.15는 우리 겨레에게 소중한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남관계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였다. 북과 남의 겨레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살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한갖 지나간 과거가 아니며 언제 다시 터질지 알수 없는 현실적인 위험으로 되였다는것을 모두에게 똑똑히 새겨준것이 바로 2010년이였다.

지난 한해에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년초부터 년말까지 외세와 함께 동족을 위협하는 전쟁연습을 중단없이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나중에는 북의 코앞에서 수천발의 포탄을 공화국의 령해에 마구 쏴부어 엄중한 군사적충돌까지 일으켰다. 공화국의 군대가 민족과 평화를 위해 최대한 자제하고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제2, 제3의 군사적충돌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초래될수 있은 험악한 정세였다.

조선서해지역으로 말하면 력사적인 10.4선언에 따라 북과 남이 이 수역에서의 충돌방지와 공고한 평화를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 경제특구건설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한 곳이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당국의 광란적인 동족대결소동으로 말미암아 《기회와 협력의 서해》는 전쟁의 바다로 화하였다.

바다만이 아니다. 위험천만한 북침불장난소동과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심리모략전책동으로 지상에서도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 *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으며 불신과 대결, 전쟁위험의 악순환만이 되풀이되는 오늘의 험악한 사태는 남조선보수당국의 극도의 동족대결정책, 전쟁책동이 초래한것이다.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집권하였지만 집권 수년간에 6.15이후 겨레가 쌓은 북남관계의 소중한 성과물들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북남관계의 력사를 앞으로가 아니라 몇십년 뒤로 후퇴시킨 장본인은 바로 남조선의 현 당국이며 그들에 의해 겨레는 소중한 많은것을 잃었다.

오늘에 와서 겨레는 6.15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뼈저리게 절감하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6.15는 곧 통일이고 평화이며 번영이다.

그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을 부정하고 《비핵, 개방, 3 000》, 《흡수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북남관계를 갈수록 전쟁의 수렁속으로 몰아가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최광혁

---

# 백두산화산공동연구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진행

백두산화산공동연구를 위한 두번째 북남실무접촉이 12일 개성에서 진행되였다.

접촉에서 북측은 실무접촉의 목적이 백두산화산공동연구를 추진시키기 위한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는데 있다는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학술토론회와 현지답사의 시기와 장소, 그 규모와 형식, 내용 등과 관련한 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할것을 제기하였다.

남측은 백두산화산공동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그 무슨 《접근방식》이니, 《원칙》이니, 《단계별계획》이니 하면서 선행연구는 6개월, 본단계연구는 2년이상이 소요되므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학술토론회를 하자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그러면서 백두산화산징후와 관련한 북측 자료를 먼저 넘겨줄것만 계속 고집하였다.

북측은 남측의 부당한 태도를 강하게 문제시한 다음 백두산화산공동연구와 관련한 학술토론회와 현지답사가 실현되면 자료교환은 자연히 진행될수 있다고 하면서 북측 합의서초안을 받아들일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백두산화산징후에 대한 자료를 먼저 넘겨주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장시간이나 뻗치다가 나중에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저들의 그 무슨 《접근방식》이니, 《원칙》이니, 《단계별계획》이니 하는것을 장황하게 라렬한 《량해각서》라는것을 들고나와 고의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로 하여 접촉은 결렬위기에까지 놓이게 되였다.

남측은 저들의 생억지가 더이상 통하지 않고 결렬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자 회담장에서 철수하였다가 다시 서울당국의 지령을 받으며 무려 4시간이나 끌다가 마지못해 북측이 제시한 합의서에 수표하였다.

합의서는 북과 남이 백두산화산분출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협력하여 오는 5월초 평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백두산화산공동연구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 중순 백두산화산에 대한 현지공동답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합의서는 일단 채택되였지만 그 실천여부는 앞으로 남측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달려있다.

본사기자

---

# 관광파괴자의 앙탈질

얼마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현대측에 준 독점권을 취소하는 문제 등을 담은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서는 남측의 끈질긴 방해책동으로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망이 없게 된것과 관련하여 현대측에 준 금강산관광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는것, 그러되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은 아태가 맡아하고 남측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하도록 한다는 새로운 립장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당국은 아태가 취한 새로운 조치를 시비하며 《받아들일수 없다.》고 아부재기를 치고있다. 이것은 동족대결과 그로 인한 관광파탄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부질없는 소동에 불과하다.

다 아는바와 같이 금강산관광을 오늘과 같은 파국적위기에 몰아넣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당국에 있다.

현 남조선당국은 집권하자마자 5개월도 못되여 금강산관광객사건을 구실로 10년간 계속되여오던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였다. 이것은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대결정책을 들고나온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협력사업을 파탄에로 몰아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취한 조치였다.

하지만 공화국은 금강산관광을 어떻게 하나 재개하기 위해 근 3년간 할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관광객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충분히 해명해주고 유감도 표시하였으며 최고의 수준에서 남측이 요구하는 신변안전담보와 재발방지조치도 취해주었다. 금강산관광재개와 관련한 당국회담도 여러차례 제의하고 남측의 립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제안들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억지구실을 내대면서 관광재개회담을 이리저리 기피하였고 모처럼 열린 협상도 부당한 《3대조건》을 끝까지 고집하여 결렬에로 몰아갔다.

이로 하여 금강산관광은 더이상 재개될 가망이 없게 되였다.

따지고보면 금강산관광은 당초에 북의 제의에 의해서 마련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세계적명산인 금강산을 보고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남측기업의 요청을 공화국이 동포애의 심정으로 들어주어 시작된것이다.

공화국은 동포애의 견지에서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남측에 최대의 특혜를 주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의 책동으로 금강산관광이 근 3년간 중단됨으로써 공화국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이며 비극적인 사태를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기에, 더우기 근 3년간이나 관광이 중단되여 기존합의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 조건에서 부득불 아태는 이번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것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이번 아태의 조치를 두고 《당국자간의 합의위반》이니, 《국제법위반》이니 하며 떠들고있는데 이것은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소리이다.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이 합의발표하고 온 겨레와 세계의 지지찬동을 받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정권》이 바뀌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휴지장처럼 차던진것은 누구이고 조선정전협정의 조항에도 없는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을 지금까지 악질적으로 고집하여 서해를 총포탄이 오가는 불바다로 만든 장본인은 또 누구인가.

남조선당국은 리치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을것이 아니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들자신이 지른 빗장부터 뽑아버려야 마땅할것이다.

서명수

---

# 동족대결을 위한 《사업비》

남조선에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전쟁화약내를 짙게 풍기고있는 지금 통일부가 이른바 《민간통일운동》을 하는 25개 단체에 총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북남관계를 완전단절한 통일부가 갑자기 《사업비지원》놀음을 벌린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가 아니다.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될수 없다고 그 고약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것이다.

그것은 수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단체들의 면면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 수십개의 단체들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는 없고 순수 동족사이에 대결과 적대의식을 고취하고있는 악질반공화국단체들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열린북한》, 《탈북자동지회》와 같이 명칭만 보아도 그 색갈을 명백히 알수 있는 극우보수단체들이다.

대표적으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연평도포격사건과 관련하여 그 누구의 《무력도발》을 떠들며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리고 지어 《북규탄 길거리서명운동》이라는 광대극까지 연출하였었다. 지난 3월 25일에도 이 단체들은 특대형모략극인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니 뭐니 하며 대결광기를 부리다 못해 유엔에 《〈천안〉 합의견서》라는것을 발송하는 추태도 부리였다.

남조선 각계가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풍선》으로 락인하고 견결히 반대배격하고있는 모략적인 삐라살포행위를 앞장서 벌리고있는 대결광신자들의 집단도 이번에 통일부의 《사업비지원》을 받은 단체들속에 많이 포함되여있다.

이른바 《탈북자동지회》가 자기 조국과 부모처자를 버리고 월남도주한 신념도, 량심도 없는 가련한자들의 집합체로서 여기저기 돌아치며 반공화국대결선동을 일삼고있는 모략단체라는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단체들이 벌리는것은 《민간통일운동》이 아니라 사실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 반통일운동이다.

통일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이 단체들을 내세워 벌리려고 하는 사업내용이 《북한인권영화제》, 《난민문제국제회의 개최》, 《북한인권 르포》제작, 《통일세 공론화》 등 동족대결과 《흡수통일》을 고취하는것들이라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이번 지원놀음이 무엇을 노린것인가를 명백히 알수 있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의 집권세력이 《대화》니, 《진정성》이니 뭐니 하지만 진짜 속에 칼을 품고 동족을 해치려고 갖은 음모적방법을 다 쓰고있는 대결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자신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사실 공화국은 최악의 상태에 이른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년초부터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며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전쟁소동, 모략소동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기 위한 대화의 마당에 나오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무슨 《진정성》과 《태도변화》를 운운하며 동족의 선의와 아량을 거부해나섰으며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마저 고의적으로 결렬시켰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의 불구름을 일으키다 못해 어중이떠중이 반공화국대결단체들에 동족대결을 위한 《사업비》까지 대주며 북남대결의 골을 더 깊이 파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극도의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저들에게 차례질것은 수치와 파멸뿐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김일환

---

# 북녘의 손에 가시가 있는가

북과 남사이의 긴장과 대결상태를 해소하려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는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전쟁위험이 무겁게 떠돌고있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차마 보고만 있을수 없어 남조선내에서도 당국의 대결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국회》에서도 동족이 관계개선을 위해 손을 계속 내미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현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비발쳤다. 가관은 그에 죄의식을 느끼고 사죄해도 모자랄판에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 엉뚱한 대답이다. 북이 내미는 《손에는 가시가 있다.》는것이다.

낯가죽이 두꺼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연 동족이 내미는 손에 《가시》가 있어 저들이 지금껏 그 손을 잡지 않고있는것인가.

사실관계를 따진다면 북의 손에는 《가시》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의와 진심이 깃들어있다.

북은 시종일관 대화와 협력을 주장하고있다. 남측의 대결정책으로 초래된 험악한 북남관계를 대화와 평화적방법으로 풀기 위해 올해에도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고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북남대결상태를 이이상 더 지속하게 되면 어차피 충돌과 전쟁밖에 초래될게 없고 민족이 참혹한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마주앉아 난국을 풀어나가자는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무슨 《사과》니, 《재발방지약속》이니 하는데 연평도포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고 북이 남에 대화의 손을 내민것이다.

북이 내미는 손은 상대방에 대한 넓은 아량이 깃든 큰 손이다.

사실 북이 마주잡으려 하는 현 남측당국의 손은 어떤 손인가.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이 손을 맞잡고 세상에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들을 집권하자마자 휴지장처럼 집어던지고 대화없는 대결의 칼바람을 몰아오던 손이다. 북남사이의 철도와 도로를 끊어놓고 래왕과 협력의 길에 갖은 장애물을 높이 쌓은 손이고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모략적인 삐라를 날리던 손이다. 대화를 기피하고 뒤골방에 앉아 《흡수통일》각본을 짜던 손이며 이 시각에도 외세와 함께 화약내질은 북침전쟁연습의 방아쇠를 당기고있는 손이다. 그 손은 터무니없는 《조사자료》를 유엔에까지 들고가 동족을 모함하던 손이다.

할말은 남보다 북이 더 많고 책임을 물어도 북이 남측당국에 물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북은 민족과 통일을 위해 그 모든것을 참고 대범하게 손을 내밀었다. 과거보다 오늘이, 미래가 더 중요하기에 화해와 협력의 손을 내민것이다.

북이 내미는 손은 민족애, 통일지향이 높뛰는 뜨거운 손이다.

장장 60여년이나 지속되는 민족분렬로 하여 북과 남에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있다. 하지만 북은 남에 그 무엇을 강요하는것이 없다. 북의 식으로 남쪽에 체제변화를 하라고 말한것도 없고 누구처럼 그 무엇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것도 없다.

통일만이 민족의 살길이고 평화번영의 길이기에 한피줄인 동족끼리 만나자는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쳐 통일에로 나아가자는것이다.

민족과 통일을 위하는 북의 이런 뜨거운 진정이 《가시》라면 도대체 《가시가 없는》 그들의 손은 어떤 손인가.

집권해서 3년이 지난 오늘까지 동족의 선의와 제의를 끝까지 뿌리치는 랭혈의 손이고 21세기 새로운 10년대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랭전시대의 적대관념에 사로잡혀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자는 적대의 손이다. 그 손은 외세와 손잡고 동족을 치려는 반역의 손이고 우리 민족에게 두번다시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죄악의 손이다.

그 《가시 박힌 손》의 실체는 바로 현인택이고 남조선의 보수당국이다.

그들의 손에는 단순히 가시정도가 아니라 동족을 해치려는 날이 선 비수가 쥐여져있다.

현인택이 북의 손을 잡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가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자신이 북남관계개선을 원치 않기때문이다. 《원칙》으로 포장된 대결정책을 포기할수 없고 《흡수통일》의 기도를 버릴수 없기때문이다.

현인택은 더러운 손으로 감히 깨끗한 손을 우롱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 손에 쥔, 속에 감춘 대결의 비수부터 꺼내놓아야 한다.

한경수

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철회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기만과 죄악으로 얼룩진 남조선당국의 집권 3년간 행적을 고발한다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고발장

남조선에서 괴뢰보수패당이 집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

괴뢰보수패당은 지난 선거때 침발린 공약들을 많이 늘어놓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모든것이 순전히 민심을 기만하고 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괴뢰패당이 군림한 지난 3년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치욕과 고통을 들씌운 악몽과 지옥의 3년이였으며 온 겨레의 통일념원을 란도질 한 분노와 경악의 3년이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기만과 죄악으로 얼룩진 괴뢰패당의 지난 3년간 행적과 그로 인한 파국적후과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 침체와 도탄에 빠진 경제와 민생

보수패당이 공약을 들고나오면서 가장 입이 닳도록 떠든것이 경제살리기이다. 저들이 집권하면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도 구원하겠다는것이다.

괴뢰패당은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몇%로 올리고 국민소득을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하며 남조선을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올려세운다는 그 무슨 《747》공약이라는것을 요란스럽게 선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747》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민생은 극도로 령락되였으며 부정부패와 사회악이 판을 쳐 남조선은 사람 못살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되였다.

경제파탄으로 괴뢰정부가 진 빚만 해도 1조 4 486억US$, 기업들이 진 빚은 1조 1 550억US$, 주민세대가 진 빚은 7 000억US$이상에 달하고있다.

재벌위주의 경제정책과 시장개방정책의 후과로 사회의 량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이 한층 심해졌다.

남조선경제는 몇몇 재벌기업들에 의해 연명하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몰락되여 괴뢰패당의 중소기업육성공약도 휴지장이 되여버렸다.

부유층과 하층의 소득차이는 10년전에 5.7배였다면 지금은 29배까지 이르고 한줌도 안되는 특권족속들이 남조선 전체 부의 74%를 차지하고있다. 중산층은 하층, 최하층으로 전락되였다.

괴뢰패당은 《매해 60만개 일자리창출》을 공약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밀려나는 실업대란이 빚어졌다.

괴뢰언론들이 초보적으로 집계한데 의하더라도 완전실업자수는 460여만명, 하루 또는 몇개월씩 계약을 맺고 고용되여 최저생계비로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반실업자수는 무려 86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사람들의 뼈를 깎고 피를 짜낸다고 하여 《골세》, 《혈세》로 불리우는 각종 세금 역시 보수패당이 집권한 이후 계속 늘어나고있다.

자선단체가 대주는 한끼 식사로 겨우 연명하는 최극빈층은 300만세대, 하루벌이로 생계를 지탱하는 빈민층은 1 000만명에 이르고있으며 점심을 굶는 아동수도 120만명을 넘어서고있다.

얼마전에는 이름있는 영화문학작가가 《먹다 남은 밥이 있으면 좀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굶어죽어 큰 사회적충격을 일으켰다.

물가와 집값폭등도 극심하다. 집없는 사람들에게 새 집을 지어 팔아준다던 보금자리주택공약은 물거품이 되였다.

극소수 특권족속들이 평균 5채의 호화주택을 가지고 살지만 전체 세대의 38%에 달하는 700만세대이상이 세방살이를 하고있으며 그나마 거처지도 없어 닭장같은 쪽방과 판자집, 지어 움막이나 동굴같은데서 사는 주민들은 68만세대에 이르고있다.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반값등록금공약은 오히려 대학등록금을 1만US$이상으로 뛰여오르게 만들어 대학생들과 학부형들을 기절케 하고있다.

학부형들의 허리가 굽는다고 하여 《인골탑》이라고 불리우는 등록금때문에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거나 식당이나 공사판, 유흥업소로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자살까지 하는 대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매춘의 길에 들어선 녀성은 125만명을 기록하고있다.

괴뢰패당이 내건 취약계층지원, 보건의료체계개선, 아동청소년복지, 로인복지 등 민생복지공약들도 모두 빈말공부로 되였다.

특권족속들은 병이 나면 외국에까지 가서 치료받고있지만 절대다수인민들은 돈이 없어 갖가지 질병을 앓아도 병원문턱을 넘지 못한다.

암담한 경제난, 생활난에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자살자수는 하루평균 42명으로서 남조선은 자살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서민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살아있는 시체의 집합소로 변해가고있다.》고 절규하고있다.

### 파렴치한 대국민사기극

최근 남조선에서는 괴뢰패당의 주요공약의 하나인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이 파렴치한 대국민사기극으로 드러나 각계층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은 경상도지역의 늘어나는 항공운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 비행장을 새로 건설한다는것으로서 현 괴뢰집권자가 2007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들었던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30일 괴뢰당국은 경제적타당성이 없다는 구실을 내걸고 그 공약을 백지화해버렸다.

남조선집권자까지 나서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위해 계획을 바꿀수밖에 없었다느니, 리해를 구한다느니 뭐니 하고 민심을 우롱하였다.

남조선의 주요정당들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집권자의 후안무치한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강력히 항의해나섰다. 지어 《한나라당》과 소속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배신당했다고 격분해하면서 당장 사죄하고 탈당하라고 들이대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의 대국민사기극은 이뿐이 아니다.

충청도지역의 지지표를 긁어모으려고 세종시건설과 과학기술연구지구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집권하자마자 그것을 뒤집고 변경시키는 놀음을 벌렸다.

남조선강원도지역에 첨단의료과학지구를 조성하겠다던 공약도 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팽개쳤다.

괴뢰보수패당이 내세운 주요경제정책공약 16개 가운데 대부분이 전혀 리행가망이 없는것으로 판명되고있다.

보수패당이 한것이 있다면 재벌들에 대한 규제 및 세금조치들을 전면 완화, 해제하고 외국독점자본에 시장을 활짝 열어준것뿐이다.

괴뢰패당은 인민들이 요구하는것은 기를 쓰고 뒤집어엎고 인민들의 리익에 저촉되고 인민들이 반대하는것은 끝까지 내밀고있다.

대운하건설계획이 바로 그 하나의 실례이다.

남조선땅을 종단하는 운하를 건설한다는 이 계획은 처음부터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종심도 깊지 못한 남조선의 실정에서 전혀 무익한것이라는 비난여론이 비발쳤다.

남조선 각계층은 멀쩡한 강들을 파헤쳐 죽은 강으로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는 계획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괴뢰패당은 대운하건설계획을 계속 내밀려다가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교묘하게 《4대강살리기》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 강행하고있다.

괴뢰패당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민심을 우롱하였으면 남조선항간에서 현 《정권》에 대해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있다고 하여 《불통정권》, 인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고있다고 하여 《만우절정권》, 인민들이 하지 말라는 일은 기어이 한다고 하여 《말썽꾸러기 양치기소년정권》으로 비난조소하고있겠는가.

### 민주와 인권, 생존권의 박탈

괴뢰패당은 《선진화》요 뭐요 하면서 남조선을 《선진국》문턱에 들여놓을것처럼 광고하였으나 그 공약 역시 완전한 기만이였다.

극악한 파쑈독재통치의 복귀로 남조선은 지난 3년간 민주와 인권의 페허지대로,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행사할수 없는 암흑천지로 전락되였다.

《국회》도 행정부도 검찰과 언론도 모두 1인독재의 꼭두각시가 되여버렸다.

괴뢰정보원을 비롯한 각종 폭압기구가 대폭 강화되고 정치사찰이 부활하였으며 과거 군사파쑈독재 《정권》때 악명을 떨친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였다.

《정부》와 공공기관들, 각종 언론사들에서 정치적반대파들이 무리로 숙청되였다. 지난 3년동안에 제거, 숙청당한 공무원은 무려 1만여명, 공공기관원은 1만 9 000여명에 달한다.

이전 《정권》들에서 합법적으로 조직된 단체와 로조들이 불법단체로 되고 비위에 거슬리는 종교단체들은 이단시되여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1인독재통치속에 정치적반대파들에게 무자비한 복수가 가해져 두 전직 《대통령》이 비운의 죽음을 당하는 사상 처음으로 되는 비극적사태도 일어났다.

괴뢰국회는 지난 3년동안 260일간이나 중단되고 권력의 시녀가 되여 《식물국회》,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으며 어쩌다 열리면 폭력의 란장판, 전쟁터로 되였다.

집회와 시위, 언론의 자유가 전면 유린당하고 투쟁의 거리와 광장들이 봉쇄되였으며 괴뢰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려 박해를 당하고있다.

지난 3년동안 시위진압에 동원된 파쑈경찰의 수는 연 수백만명에 달하였으며 수천명의 시위참가자들이 부상당하고 련행되였다.

생존권을 위한 로동자들의 정당한 투쟁도 가차없이 탄압당하고있다.

2009년 쌍룡자동차로조원들의 파업투성때 파쑈도당은 무려 77일간이나 파업현장에 전기와 물, 가스, 식량공급을 차단하고 수천명의 중무장한 경찰과 깡패들, 직승기까지 동원하여 야수적으로 진압함으로써 4명이 죽음을 당하고 70여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참변이 일어났다.

남조선철도로조의 파업도 이렇게 처참하게 진압당했다.

철거민들이 항의하다가 파쑈경찰의 탄압만행에 의해 불에 타죽고 등록금을 낮추어달라는 어린 녀대학생들이 폭압깡패무리의 구두발에 마구 짓밟히고있으며 바른소리를 한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의 입에 자갈이 물려지고있다.

꽃나이녀배우가 괴뢰특권족속들과 정치인들의 노리개로 유린당한 치욕을 씻을수 없어 목숨을 끊고 녀기자들이 《국회》의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며 여당대표가 성희롱을 하고 해외주재로 나가있는자들까지 성추문으로 떠들썩한것이 괴뢰패당의 집권이 가져온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괴뢰패당의 집권 3년간 남조선은 악명높은 《유신》독재시기를 릉가하는 파쑈와 독재의 동토대로 전변되였으며 《선진국》으로 올라서기는커녕 민주와 인권의 《후진국》으로 더 추락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장기간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싹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초보적인 인권의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된것은 실로 비극이다.

### 북남관계의 전면파탄과 전쟁위기의 심화

괴뢰보수패당은 집권 3년사이에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넣었다.

보수패당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면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선언들에 의해 이룩된 성과들을 깡그리 유린말살하였다.

특히 《핵포기우선론》과 《비핵, 개방, 3 000》을 내들고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전에는 어떤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북남대화와 접촉을 모조리 차단시키고 협력사업에 빗장을 질렀다.

괴뢰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대화, 평화제안에 대해 외면부정함으로써 북남당국사이에 한번도 변변한 대화가 열리지 못하였으며 겨우 열렸던것마저 파탄되였다.

괴뢰패당에 의해 그동안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속에서 잘 진행되여 오던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도 중단되였다.

괴뢰패당은 온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던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을뿐아니라 북남협력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질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협력사업의 차단과 금강산관광중단, 개성공업지구고사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수천개 기업들이 무리로 녹아나 파산사태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관광의 덕을 보고있던 남조선강원도 고성군 주민들은 당장 살아가기가 막연하게 되였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적십자인도주의사업도 괴뢰패당의 무성의한 태도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괴뢰역적패당은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누구보다 앞장에 서서 춤추면서 《북에 돈 한푼, 쌀 한톨이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악질적으로 놀아댔으며 밖에까지 나가 그러한 추태를 부려 조소거리가 되였다.

한편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주장하는 통일운동단체들과 민간단체, 인사들에 대해서는 파쑈악법인 《보안법》에 걸어 《친북》, 《리적》, 《간첩》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괴뢰패당은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과 《급변사태》망상에 사로잡혀 반공화국모략대결소동과 북침전쟁책동에 극도로 미쳐날뛰였다.

괴뢰패당은 《북인권법》을 조작하고 중단되였던 반공화국심리전을 전면적으로 개시하였을뿐아니라 정보원 요원들과 우익깡패들을 내몰아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랍치와 귀순공작을 감행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괴뢰호전광들속에서는 《북핵선제타격》폭언과 《전쟁불사》망발이 마구 튀여나오고 미국상전과 주구사이에 극히 위험천만한 침략적모의들이 련이어 벌어졌다.

새로운 북침작전계획들이 작성되여 이를 실전에 옮기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이 더욱 빈번해지고 최신전쟁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였다.

괴뢰패당은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미국과의 결탁밑에 전례없는 특대형모략사건과 엄중한 군사적충돌사건을 도발하여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치달아오르게 하였다.

실로 괴뢰패당이 저지른 죄악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남조선에서 지금까지 《정권》이 여러번 바뀌였지만 현 괴뢰보수패당과 같은 추악한 친미사대, 동족대결미치광이무리는 없었다.

괴뢰패당의 집권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얻은것은 좌절과 고통, 희생뿐이다.

괴뢰패당의 집권 3년을 계기로 쏟아져나온 남조선 각계층의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는 기만과 죄악으로 가득찬 보수《정권》에 대한 준렬한 단죄이다.

심각한 통치위기에 직면한 괴뢰패당은 지금 폭발직전에 이른 민심을 수습해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면서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악정을 뼈저리게 체험한 남조선인민들은 두번다시 괴뢰패당에게 기만당하지 않을것이다.

괴뢰보수패당의 비참한 종말은 이제 멀지 않다.

역적패당이 민족을 등지고 파쑈독재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것은 저들의 파멸을 앞당기는것으로 될뿐이다.

력사와 대세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괴뢰패당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0(2011)년 4월 8일
평 양

# 항쟁용사들의 그 넋은 오늘도

남조선에서 4.19인민봉기가 일어난지 51년이 되여온다.

돌이켜보면 4.19인민봉기는 미국의 악랄한 식민지지배정책과 그 주구인 리승만도당의 파쑈통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대중적인 반미반파쑈항쟁이였다.

1960년 3월 15일, 리승만도당의 사상류례없는 협잡《선거》를 반대하여 일어난 마산시민들의 투쟁은 4월에 들어와 마산앞바다에서 경찰들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된 김주렬학생의 시체가 발견된것을 계기로 남조선전반지역을 포괄하는 대중적인 봉기로 확대되였다.

연 135만여명의 각계층 인민들은 《썩은 정치 물러가라!》, 《리승만〈정권〉타도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도처에서 파쑈통치기구를 짓부셔버림으로써 독재《정권》을 밑뿌리채 뒤흔들었다.

격노한 시위군중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의지는 파쑈무력의 야수적탄압을 제압하고 마침내 독재《정권》을 붕괴시켰다.

4.19인민봉기는 억압자들의 그 어떤 파쑈폭압과 기만술책으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진출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포악한 압제자라도 능히 짓부셔버리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세월은 흘렀어도 죽음을 맞받아나가며 파쑈독재의 총칼폭력에 용감히 맞서 싸운 의로운 봉기자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과 고귀한 넋은 오늘도 전해지며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영웅적인 4.19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오늘도 외세의 지배와 파쑈통치가 실시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존권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미국에 국익을 맞추는것》을 중요《외교정책》의 하나로 내세운 현 보수집권세력은 미국상전에게 《핵우산》제공과 《동맹》강화를 구걸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끌어들이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연기하는 등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고있다.

이뿐아니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동족대결정책을 추구하면서 북남관계를 극도의 위기와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해마다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도 계속하는 등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전쟁책동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남조선에서는 과거 군사파쑈독재시대의 백골단과 같은 폭압기구와 제도들이 되살아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좌파》, 《친북리적》으로 몰려 박해와 탄압을 당하고있다. 《동남권신공항건설》, 《반값등록금》과 같이 경제를 살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원할듯이 내든 《선거공약》들은 어느 하나 실현된것이 없고 갈수록 커가는 생활난에 자살자대렬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현 보수당국의 집권 3년기간 남조선인민들이 얻은것은 불행과 고통, 죽음뿐이다.

현실은 사대매국과 파쑈,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세력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재난이 가시여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반세기전에 울려나왔던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다시 울려나오고있는것도 결코 우연치 않다.

남조선인민들은 4.19용사들의 투쟁정신과 넋을 이어 대중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을 안아오고야 말것이다.

류철진

# 화약내풍기는 《국방개혁》놀음

최근 남조선의 군부가 이전 《정권》시기에 나왔던 《국방개혁2020》을 대폭 뜯어고친 새로운 《국방개혁안》인 《307계획》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사회각계가 들끓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이 공개한데 의하면 이 계획은 국방부가 3월 7일 현 집권자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여 《307계획》이라고 불리운다고 한다.

이 《국방개혁》안은 남조선군상부구조개조와 무력증강 등 73개의 과제를 2030년까지 집행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야당과 사회각계는 《〈국방개혁 307〉이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가속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그 철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 307계획》은 2015년에 있게 될 《전시작전권반환》으로 인한 전투력공백을 신속히 메꾼다는 미명하에 일단 《유사시》 조선전쟁에서 남조선군의 독자적인 전투수행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적인 작전지휘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어리석은 《승공통일》의 야망밑에 남조선군을 독자적인 전쟁세력으로 키우고 그에 맞게 지휘구조와 무력을 재편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지난해에 있은 연평도포격사건 당시 저들의 대응에 부족점이 있다고 떠들면서 이번 《개혁》을 통해 군부가 도발과 전쟁을 주도하도록 지휘구조를 개편하려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다음번 전투기구입사업을 통해 미국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최신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군의 무장장비를 강화하려 하고있다.

특히 그들은 이번 《국방개혁》을 통해 남조선군사병들속에 공화국에 대한 대결관념을 고취하는 정신교육체계와 훈련강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그들이 동족대결에서 돌격대로 될것을 꿈꾸고있다.

이러한 흉계밑에 보수집권세력은 남조선 각계는 물론 지어는 군부내에서까지 반대하고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기어코 강행하려 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이 이미 한도를 넘어 극한점에 이르렀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은 안중에 없이 동족대결에 혈안이 되여 전쟁만을 추구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반민족이며 반통일적인 전쟁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용납될수 없다.

김성남

남조선인민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규탄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